

# TRANS- HUMANITIES

---

**Title : 물의 구조전환과 유동하는 전후 일본**  
**Phase transition of water and the fluid situations in**  
**postwar Japan**

Author(s) : 이선윤 (LEE Sunyoon)

Source : *Trans-Humanities*, Vol. 5 No. 3 (2012), pp. 55-73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http://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물의 구조전환과 유동하는 전후 일본\*

이선윤

### 1. 들어가며 - 물질 변형의 문제

본 논문은 아베 코보(安部公房)의 1950년대 소설텍스트에 나타나는 물질의 구조전환(상전이相轉移),<sup>1)</sup> 특히 물의 구조 전환에 주목하고, 그것이 그려내는 ‘경계의 무화’를 둘러싼 문제를 전후일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착목하여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아베 코보의 텍스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변형>이라는 문제는, 인간 신체의 물질적 경계의 와해와 그 재구성을 통해 사물화해가는 과정으로, 또한 변형된 상황자체의 제시로서 그려진다고 할 수 있다.<sup>2)</sup>

---

이선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5).

- 1) 相轉移(phase transition): 물질이 온도, 압력, 조성 등과 같은 조건변화에 의하여 어떤 상에서 다른 상으로 변화하는 현상
- 2) 얼굴의 윤곽이 와해되면서 식물로 변하는 단편소설 「덴도로카카리아」(デンドロカカリヤ, 1949)에서도 그 초기 형태를 볼 수있다. 단편소설 「시인의생애」(詩人の生涯, 1951)에서는 피곤에 지친 노파의 신체가 한 올씩 실로 풀려 변형되고 종국에는 그 실로 짜인 옷으로 변모한다.

아베 코보의 변형의 논리는 물질, 특히 무기물에 대한 주목을 통해 정교화되었다.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적 응집력과 같은 공동체적 논리나 그와 관련된 심정적 요소의 강조 등을 유기물적인 감성논리라고 보고 이를 경계하는 아베는 무기물의 세계에 주목하였다.<sup>3)</sup> 「벽 - S·카르마씨의 범죄」(壁 - S·カルマ氏の犯罪, 1951)<sup>4)</sup>에서는 “죽은유기물에서 살아있는무기물로!”라는 문구가 소설 속 전단지에 등장하며, 이름을 잃어버린 주인공 카르마씨가 “성장하는 벽”으로 변신하는 이 텍스트의 결말부는 이러한 문구의 재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베 코보 연구에서 먼저 주목을 받은 무기물은 모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모래는 끊임없이 유동하며 경계를 침범하거나 변경하기도 하며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변형 가능한 물질이다. 모래가 주목을 받은 것은, 영화화를 통해 대중적, 국제적으로 알려진 장편소설 『모래의 여자』(砂の女, 1962)라는 대표작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만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아베 코보의 감성에 대한 작가론적 차원의 평가가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물은 모래와 같은 광물이면서 모래 이미지가 갖는 건조성과 대극적 성질을 지닌다. 물의 문제는 아베 코보의 다수의 텍스트에서 중요 모티브로 등장하며, 변화의 순간과 관련되는 중요한 소재이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있어 중점적인 분석 대상으로 주목을 받아오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물에 관련하여 분석하거나 언급한 선행연구로

3) 인간을 동물이나 광물과도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하나다 기요테루(花田清輝)에 대해 아베 코보와 관련하여 서술한 연구로 岡庭昇의 「動物植物 鉱物」『花田清輝と安部公房』가 있다.

4) 원고에는 1950년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지면에 처음 발표된 해는 1951년이다.

5) 모래의 표상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모래의 여자』(『砂の女』)와 관련된 작품론적 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安部公房『砂の女』作品論集』(石崎等編, クレス出版, 2003)에 수록된 21편의 논문 및 呉美姬의 「〈戦後〉的パラダイムの終焉 - 『砂の女』論」 『安部公房の〈戦後〉』(クレイン, 2008) 등이 있으며, 관련된 주제의 좌담회로는 「《座談会昭和文学史》三島由紀夫と安部公房 - 〈仮面〉と〈砂漠〉の預言」(2000년 4월에 잡지 『すばる』 주취)을 들 수 있다.

는, 소설 『제4간빙기』(第四間氷期)의 작품론으로서 당시의 유전학적 과학이론을 토대로 유전자 변형에 관한 텍스트 내의 논리성을 살펴본, 도바 코지(鳥羽耕史)의 「아베코보 『제4간빙기』 - 물 속의 혁명」(安部公房『第四間氷期』 - 水のなかの革命), 중국 군중들의 폭동을 물의 흐름에 은유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나미가타 쓰요시(波瀾剛)의 『월경(越境)의 아방가르드』(越境のアヴァンギャルド) 등이 있다.

물은 모래와 같이 유동하며 어떤 형태로든 변형 가능한 광물이면서, 사막이 물의 결핍으로 설명될 수 있듯이 모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모래의 변형이라는 것은 고체상태의 결합이나 분산, 더 작은 크기로의 해체 등 물체로서의 상 자체의 변형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에 비해, 물의 경우에는 온도 등의 환경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단시간 내에 물질구조의 상 자체가 바뀌는, 물질적 경계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변신’을 보인다.

아베 코보의 문학텍스트에서 변화(외형적, 심리적 혹은 상황적)라는 문제를 살펴볼 때, 물이 그 변화의 전조 혹은 배경이 되거나, 때로는 변형체 그 자체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늘 근처에 있던 여성이 하루 밤 사이에 얼굴이 일그러지는 변화를 겪거나(「까마귀 늪」(鵜沼))<sup>6)</sup>, 모래언덕의 외딴 집에 갇혀 있던 남성이 물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일변하기도 하며(『모래의 여자』), 홍수가 등장하는 여러 텍스트에서 물의 범람이 세계를 전복시키는 장치로 등장한다.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볼 때, 아베 코보의 텍스트 내에서의 물은 변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아베 코보의 「홍수」(洪水)<sup>7)</sup>, 「벽 - S·카르마 씨의 범죄」, 「수중도시」(水中都市)<sup>8)</sup> 등의 1950년대 초의 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6) 『思潮』, 1948년 8월 게재.

7) 『人間』, 1950년 12월 게재.

8) 『文学界』, 1952년 6월 게재.

기존의 여타 선행연구에 있어 논의되지 못했던 물의 성질과 경계의 해체에 대해 일본의 전후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물의 상전이(相轉移)를 조명함으로써 물질적 경계의 유동성이라는 측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조건에 따라 유동하는 물질성을 지닌 물의 이동이 형성하는 공간을 분석하고, 이를 ‘불연속성’이라는 단어로 대변되고 있는 전후 일본 사회의 혼돈상과 연결하여 논의 할 것이다.

## 2. 상(相)전이의 다이내미즘

「홍수」는 아베 코보의 초기단편 소설 텍스트로 물질적 고유성 및 경계를 파괴하는 홍수라는 사태를 소재로 다룬 단편소설이다. 「벽 - S · 카르마 씨의 범죄」에서 사물을 흡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주인공 카르마 씨의 신체를 조사하기 위해, 낙타를 타고 그의 눈을 통해 체내로 들어간 조사단이 카르마 씨의 눈물의 범람에 의해 홍수에 휘말리는 에피소드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홍수」는, 아베 코보가 천착해온 노아의 방주라는 테마를 인간 신체의 액화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홍수라는 사태가 가지는 성격과 그 의미를 확인하기에 앞서 물 자체가 갖는 성질과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이라는 물질의 상은 액체, 기체, 고체,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액체는 물질 내의 원자 혹은 분자가 결합하는 힘이 열 진동보다 약해진 상태이다. 임계압력 이하라면 각 물질 별로 일정 온도에서 고체에서 액체로의 구조상전이(相轉移)가 일어난다. 이 때 고체에서 액체로 전이하는 온도를 융점이라고 한다. 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 채로 온도를 올리면, 어느 정해진 온도에서 포화증기압이 그 압력에 도달하고, 액체 내부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이때의 전이온도가 바로 비등점(沸騰點)이다. 이와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는 액화하고, 온도의 저하가 더 계속되면 그 액체는 응고하여 고체가 된다. 융점이나 비등점은 압력 등의 외적인 조건의 영향에 의해 변화하는데 물질은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상이라는 물질적 정체성의 경계를 넘나들게 된다.

다음 인용문에는 물이 전술한 구조상전이를 보이며 그 지배력을 증폭시켜가는 양상이 그려져 있다.

액체인간들은 산을 기어올라가 강으로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 수증기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리기도 했기 때문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시도 방심할 수 없었다(安部公房, 『安部公房全集002』 496).

홍수는 날마다 불어나 여러 거리와 마을들이 수몰되었고, 많은 평야와 언덕이 액체인간으로 뒤덮여, 공포심에 휩싸인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이들은 고원으로, 산악지방으로, 서로 앞을 다투어 피난을 가기 시작했다. 벽마저도 기어오르는 액체인간들에게 그런 대응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쓸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安部公房, 『安部公房全集002』 497)

여기서 액체인간의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물질적 변환, 즉 구조상전이이다. 고체와 액체와 혼합된 인간의 신체가 녹아내려 액화되는 과정에서는 구조상전이가 일어난다.

물론 이와 함께 인간신체의 물질 구성성분도 순수한 물의 구성성분으로 질적인 변이를 보이지만 그것은 텍스트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문제는 고체와 액체의 복합물로 이루어진 가난한 노동자의 신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사건 자체에서 보이는 구조상전이와, 그의 신체

가 액화한 이후에 또 다시 다양한 상전이를 보이며 갖게 되는 운동성과 폭력적 힘이다.

「홍수」에서 물의 범람을 일으킨 이 액체의 성분은 분석 결과, 물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반적인 물처럼 동결되기도 하고 증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빙점이나 비등점은 제 각각으로, 두꺼운 얼음 위를 달리던 썰매가 갑자기 녹아버린 얼음 위에서 말과 함께 물속으로 빠져 버리기도 하고, 스케이트 경주에서 선두를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여기서 물질적 경계의 해체와 변화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예상은 힘을 잃고, 불시에 찾아오는 경계들의 와해는 무질서를 증폭시킨다.

물의 융점은 통상적으로는 0℃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냉각시킬 때 영하 10℃정도까지도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를 과냉각이라 한다. 이 과냉각 상태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순식간에 모두 얼음으로 변할 수 있다. 또 물의 비등점(끓는점)은 100℃이지만 서서히 가열하면 온도가 100℃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끓어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태를 준안정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의 물을 더 가열하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끓어오르며 수증기가 되고 그 기화열에 의해서 다시 100℃의 지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물은 경우에 따라 미세한 자극만으로도 역동적인 상전이를 보인다.

「홍수」에서 액화한 신체가 격한 운동성을 띠기 시작한 것처럼 물은 액체 상태에서 원자, 분자가 비교적 가장 자유롭고 랜덤하게 움직인다. 텍스트에서 단순히 무질서하게 그려진 듯이 보이는 상전이의 현상은 비 과학적인 상상력의 나열로서만이 아니라, 물이 갖는 성질에 근거하면서 작은 충격에 의해 급격한 상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변환의 스위치와 같은 순간이 존재한다는 과학적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액화와 냉각, 기화 등 다양한 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변환의 과정에는 질서와 무질서가 혼재되어 있고, 파괴적 면모가 잠재되어 있다는 위협적이면서도 극히 현

실적인 형상을 「홍수」라는 텍스트는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 액화가 특징적인 또 하나의 지점은 「홍수」에서는 홍수의 원인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인간의 액화로 설정되어 계급성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강조되어있다는 점이다. 인용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은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들이다. 나날이 퍼져가는 물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이를 피해 수동적으로 피난처를 찾아갈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액체인간들은, “산을 기어오르고, 강으로 휩쓸려 들어가며, 바다를 건너”, 증발하여 구름이 되기도 하고 비가 되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등 격렬한 기세로 확산과 응결을 반복하여 상전이를 하면서 다양한 경계지점들을 넘어서 그 끊임없는 운동성을 과시한다.

액체화되어가는 전후 일본 사회의 재생의 가능성은 “이건 노아의 방주다. 착각해서는 안돼. 자 어서 나가게!”라고 외치는 “노아의 말도 이제 들을 수 없는”, 과거에 인간이었던 액체 그 자체인 것이다.

홍수라는 신이 내리는 폭력이 세계의 질서를 무화시킨 후에 노동자의 심장이 있던 곳을 중심으로 물질의 결정이 빛나기 시작하는 결말부는, 포화상태의 액체에서 새로운 물질이 나타난다는 혼돈 속의 재생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액화하여 균일한 액체가 된다는 것은 개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결정이 태어나는 장소가 노동자의 심장 부근이라는 점에서 계급성이 중요한 의미를 띠며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편소설 「벽 - S·카르마 씨의 범죄」에서의 홍수의 원인은 카르마 씨의 눈물에 기인한 것으로 물의 파괴력이 인간에게서 유래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카르마 씨의 체내에서 성장하는 벽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르반 교수 즉 카르마 씨의 아버지가 낙타를 타고 카르마 씨의 눈을 통해 그의 체내로 들어가는데, 눈물샘의 범람으로 홍수에 휘말리게 된다.

“격동하는 파도와 검게 소용돌이치는 수면”에서 방주는 사라지고 낙타도 사라져가며, 그 혼돈의 틈새에서 유르반 교수는 필사적으로 헤엄친다.



이 텍스트에도 단편소설 「홍수」처럼 ‘파괴력을 지닌 물’로서의 홍수의 폭력성이 그려진다. 「벽 - S · 카르마 씨의 범죄」에서 카르마 씨의 몸을 점령한 유르반 교수와 검은 박사일행은 그 홍수에서 탈출하는 데에 성공하며, 홍수라는 사건은 카르마 씨의 신체가 갖는 위협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에피소드의 레벨로 삽입되어 있는 것에 비해, 「홍수」에서의 물은 세계를 삼키는 거대한 자연의 폭력으로 묘사되며 세계를 종말로 이끄는 파괴력으로 그려지며 그것이 스토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두 텍스트는 그 결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양쪽 모두 물이 세계를 전복시키고자하는 폭력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물의 위협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주도 물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무력하게 물결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아베는 물의 구조상전환과 운동의 성질에 착목하여 폭력적으로 세계를 삼켜버리는 존재로서 홍수의 표상을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

### 3. 전후 일본 사회와 불연속의 상수 h

물이 중요 표상으로 등장하는 아베 코보의 소설 중에서, 물로 둘러싸인 공간 속에 적응해나가는 인간의 모습이 등장하는 텍스트로는 단편소설 「수중도시」와 장편소설 『제4간빙기』(1959)<sup>9)</sup>를 들 수 있다. 두 텍스트에서 표상되는 물이 크게 다른 점은 각각의 물이라는 물질의 현실성이다.

『제4간빙기』에서 그려지는 물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의 상승이라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실적인 해수, 물이다. 이에 반해 「수중도시」의 물은 주인공의 환상에 의한 가공의 물로 읽을 수 있다. 「수중도

---

9) 『世界』, 1958년 7월호부터 1959년 3월호에 연재.

시」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자신을 그다지 신용하지 않는 인간”이며, “소주를 마시는 인간이란 원칙적으로 신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다. “소주를 과음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어류로 변화”하며 “아버지도 내가 보는 앞에서 물고기가 되었다”는 기이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나”는, 정신병원이라는 단어도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음주 혹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일종의 정신착란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정신병원이 인간을 물고기로 변화시키는 주사를 놓는 곳이라 생각하는 화자 “나”는, 불변하는 절대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물고기가 되어서까지 나인 채로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고기화’는 인간의 정신적 동요나 사회적 일탈을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교정당하는 제도를 상징한다. 사회적 질서의 틀을 벗어나는 존재들을 정신병원이나 감옥 등에 수용하는 근대의 교정제도에 대해 아베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1975)이 나오기 훨씬 이전인 1940년대 후반부터 의식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단자의 고발」(異端者の告発, 1948)<sup>10)</sup> 등의 소설 텍스트에도 이러한 정신병과 병원 수용에 관련된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다. <sup>11)</sup>

“나”는 물에 잠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곳에는 찢겨져나간 불쌍한 소시민,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있다. 그가 이 경치를 좋아하는 것은 “병은 건강의 거울”이며 “분열의 구조를 내부로부터 철저히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태와 그를 둘러싼 환경을 병리학적인 문제로 설정해놓은 주인공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분열증적 감각은 우연히 떠오른 ‘불연속의 상

10) 『次元』, 1948년 6월호 게재.

11) 「이단자의 고발」과 아베의 정신병원 체험(전시 중의 松沢病院에서의 진료)과의 관련성에 대해 박이진은 한국일본연구단체 국제학술대회 발표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인양자와 전후일본 --아베 코보의 인양체험을 통해 본 전후」, 2012. 8. 24.

수  $h'$ 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표출된다.

수학에서 함수  $f(x)$ 가 정의역내의 점  $x = a$ 에서  $f(x)$ 의 무한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더라도  $f(a)$ 와 일치하지 않을 때,  $f(x)$ 는  $x = a$ 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다. 프랭크(Max Planck)가 열방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광자 에너지의 불연속성은  $h \nu$ 로 표기되고 광자의 진동수가  $\nu$ , 프랭크 정수는  $h$ 로 표현된다. 이 프랭크의 정수  $h$ 는 1905년 아인슈타인이 제창한 광전효과에도 도입되어 그 후 양자 역학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 「수중도시」에서는 전후 일본의 파편화된 현실을 정수  $h$ 라는 표현을 도입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불연속의 문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같은 제약회사에서 포스터를 그리는 친구와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대화에서이다. 선술집 「돈(どん)」의 스탠드에서 친구 마기(間木)는 “회사에서의 내 일이란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합리성이라는 것은 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시스템에 존재한다”며 노동현실을 비판한다. “자본이 생물로서 완성되기 위하여, 분열된 현실은 “무기질의 파편처럼 산산 조각나”버리고, 노동자인 그들은 “현실을 연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불연속성이야말로 현실세계와 이를 구성하는 언어를 유리시키는 원인이며, 파편화된 현실 속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물었을 때 “지겹다”라는 말은 그것을 꺼낸 순간에 “돌맹이처럼 딱딱한 물질이 되어서” 목구멍을 막을 뿐이다.

아베 코보는 「벽 - S · 카르마 씨의 범죄」에서 현실과 뒤바뀔 정도로 특권적으로 작용하는 ‘이름’이 지니는 언어기능에 주목하여, 일종의 분신으로서 형상화시킨 ‘이름’, 즉 자신과 동일한 외모의 인물로 변신한 자신의 명함을 등장시킨 바 있다. 「수중도시」에서 마기가 “지겹다”는 말을 “손바닥 위에 뱉어내어 굴러보기도 하고 쥐어보기도 하고 빛에 비춰보기도 하는”행위 또한 언어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주목이다.

마기와의 대화에서 상수  $h$ 를 의식하기 시작한 “나”는 귀가길에 마주

친 한 남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고 “불연속 h같은 자식”이라고 마음속에서 욕을 퍼붓는다. 대수롭지 않게, 어찌면 경박하게 보일 정도로 무심코 내뱉은 이 단어는 현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

공산당 신문의 판매에 항의하며 소동을 피우기도 하고 신문팔이의 가슴을 밀치기도 하던 그 남자는 자신이 “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나” 아파트의 문을 노크한다. 이 텍스트에서 도시라는 무대가 수중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쾌함의 근원인 “불연속 h 같은 자식”, 즉 아버지의 등장과 물고기로의 변신이다. 아버지는 탈피하여 물고기로 변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나”의 주위는 마기가 그려졌던 다음 인용문에 묘사된 세장의 수중도시 그림처럼 변해간다.

‘제방에서 본 우리 공장의 풍경이다.’라고 마기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물에 잠긴 폐허처럼 보였다. 벽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벽면이 갈라져 생긴 금이 해초처럼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다. 그 갈라진 틈새로는 수천 개의 작은 다리가 있는 물고기가 들락거리고 있다. 지면에는 강철로 된 거대한 양치류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십미터는 족히 될 듯한 고사리 사이로 노면 전차만한 크기의 기묘한 모양의 물고기가 조용히 헤엄치고 있다. 그 물고기의 눈에서는 물에 붙어 물렁해 보이는 검은 백합이 피어나고, 하늘에는 녹으려 하는 젤라틴 같은 구름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고 거기에서는 끈끈해 보이면서 반짝이는 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보니 구름이 h 라는 글자로 보였다.

다음 그림은 역시 마찬가지로 물에 잠긴 공장, 이번에는 물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그 물은 전부 지면에서 하늘을 향해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벽은 이제 완전히 수리가 끝나 모든 창문에 제대로 유리가 끼워져 있다. 열린 창문이 구석에 단 한 개 있는데 거기서 목이 없는 남자가 몸을 반쯤 밖으로 내밀고 있다. 그는 어딘가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사이를 온몸의 반 정도

가 빨로 덮인 새까만 까마귀가 낮게 날아다니는데, 크게 뜬 눈은 어딘가 무척 불안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어딘가가 접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물 자체가 형성한 주름의 굴곡 탓일 것이다. 군데군데 그물의 주름은 h 라는 형태를 만들었다.

세 장째는 아직 미완성인 것 같았다. (중략) 공장은 얼음을 쌓아 올려 만든 듯하다. 방 하나하나가 각각 하나의 얼음덩어리인데, 안쪽 깊은 곳까지도 투명하게 들여다보인다. 각 얼음덩어리 사이를 철제 사다리나가스관,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빼와 혈관처럼 지나가고 있고, 각 얼음방의 중심에는 몇쌍의 남녀가 몸을 서로 포개 채 얼어붙어 있다. 건물의 뒤편에는 화물차가 올라 탄 선로가 희미하게 보이고, 그 옆에 서있는 거대한 크레인이 이쪽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다. h 라는 글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지, 나는 아직은 알 수 없었다(安部公房, 『安部公房全集003』 212-213).

첫 번째 그림에서는 폐허가 된 수중도시에 솟아난 거대한 원시 식물들 사이를 유영하는 기괴한 심해어들을 통해 문명이 막을 내리고 다시 태초의 생명들이 시작되는, 한 질서의 사멸과 새로운 태동 혹은 생과 사 사이의 혼돈이 재현되고 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수중 도시의 물이 끓어오르고 흰 깃발을 든 목이 없는 남자가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다. 불길한 예감이 감도는 격동하는 수중세계를 그린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저공비행을 하고 있는 까마귀의 눈동자는 “무척 불안해 보인다.”

주인공은 이 두 그림 모두에서 h 라는 글자를 읽어내고 있다. 함수  $f(x)$ 가  $x = a$ 에서  $f(a)$ 와 일치하지 않는 불연속적인 현실이 h 라는 글자를 통해 제시된다. 불연속한 도시를 그린 두 장의 그림은 정식화한 답을 구할 수 없는 전후 일본의 현실을 그린 것이기도 하다.

세 번째 그림은 텍스트 내 세계의 현재로 향해 열리는 문의 역할을 하는데, 등장인물들은 “오랫동안 점차 변해가는 공장의 풍경을 묵묵히

www.kci.go.kr

응시하는 사이에 그 풍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 자신도 변화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h 라는 글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현실 세계와의 연결선  
상의 지대이다.

이 그림과 아버지의 등장이 수중도시의 세계에는 폭력이 난무한다.  
난폭한 물고기에 물려 목이 잘려나간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나는 이 도  
시의 혼란의 원인은 물의 범람에 있다. 주거공간의 배경으로 존재하며  
안정되어있던 상태를 벗어나 끓어오르거나 얼어붙는 물, 경계를 넘어  
이동해버리는 물이, 도시에 어류를 증식시키고 수중 도시는 폭력의 현  
장이 된 것이다. 경찰이나 국가권력은 무력하다.

물이 불어난 도시에서 마주친 목에 염주를 건 남성은 “이 물은 외국  
으로부터 유입된 것(舶來)”으로, “재즈 가루로 양념이 되어있어 물고기  
들이 잘 자란다”는 말을 건넨다. 이와 더불어 ‘독립과 평화’를 외치는 공  
산당 신문 판매원이나, 몸에 뿌리는 DDT<sup>12)</sup> 등의 소재에서, 또 집필 시  
점을 고려할 때, 텍스트 내부의 시간적 배경을 일본의 전후 GHQ<sup>13)</sup> 통  
치기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인공의 아파트의 옆방에 살고 있는  
여성 K코가 자신은 일본산이 아니라 미제 크림을 사용한다고 거만하게  
말하는 모습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패전 후 일본  
에서는 ‘재즈’로 상징되는 미국 문화가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전쟁 중에  
탄압을 받던 노동조합, 공산당 등의 조직들은 GHQ에 의한 일본의 비  
군사화와 관련한 구제타파 및 민주화 정책의 시행으로 이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흐  
름에 역행하는 소위 ‘역코스’(reverse course)<sup>14)</sup>로 GHQ의 정책이 변환

---

12) 일본에서는 패전 직후 위생상태의 교정을 위해 미군에 의해 입수되어 살충 등의  
용도로 쓰였으며 1976년에 농약등록이 실효되었다.

13) 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 아시아태평양전쟁 종결로 포츠담선언 집행을 위해  
일본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대부분은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GHQ는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의 약자.

되고 노동운동 및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는 공직추방의 대상이 좌익인사들의 추방으로 전환되며, 1951년에는 애국자단체혼친회(戀親會)가 개최되고, 공직자추방 일차 해제로 복귀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일본애국당이 결성되는 등 우익단체 부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에 이른다. 또 이 무렵은 A급 전범들의 감형이나 석방이 연이어 발표되는 등 전쟁 지도자층의 사회복귀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다.

「수중도시」의 발표는 GHQ통치가 종료된 1952년 4월 28일 이후인 동년 6월로, 일본의 패전으로 기존의 제도와 권력이 무너진 후 GHQ라는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고, 그것이 다시 구 제도권의 권력과 교차하는 격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베 코보는 구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의 허상과 그 와해 과정을 직접 목격했고 인양자<sup>15)</sup>로 일본에 돌아와 빈곤 속에서 예술과 사회의 변혁을 위해, 아방가르드 예술운동 및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했다. 건조지대인 만주 경험 속에서 부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습기에 대한 예민한 감각, 그리고 만주와 일본을 오가던 배에서의 경험이 아베의 물에 관한 관심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그리는 수중도시는 국가나 사회의 경계가 유동하는 불연속성의 공간이다. 수식에 의해 정해진 답을 구할 수 없고 폭력은 가까운 곳에서 분출한다. 제국주의 일본의 순사로 국가적 폭력의 일익을 담당했을 자신의 아버지는 패전 후에 일본으로 돌아와서도 약자들을 상대로 난폭한 행동을 보이며, 물고기로 변형된 상태에서도 그의 잔혹한 행위는 더욱

14) 처음으로 이 명칭을 사용한 것은 요미우리 신문의 1951년 11월 2일자 특집기사로 수중도시가 발표된 1952년에는 좌파를 중심으로 이 명칭이 통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5) 인양자(引上者). 제국주의 식민통치 시기에 한반도, 대만, 남태평양, 만주 등지에 이주했던 다수의 이주자들 중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의 패전 후, 일본 본토로 돌아오게 된 이들을 지칭한다.

증폭되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

수난을 당하는 인물은 공산당 신문의 판매원이고 이를 욕하며 훼방을 하는 남자가 아버지이며, 그는 만주에서 순사를 하던 인물로 설정되어, 전중의 일본 제국주의 국가권력에 관련되어 있으나 그 중심이 아닌 제국주의 운영에 동원된 중하층을 은유한다. 몸이 부풀어 올라 가족이 파열되며 괴물 같은 형상의 물고기로 변하는 이 아버지의 캐릭터는, 미제 염주를 걸고 그것이 우리 지켜줄 거라던 염주 장사의 목을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살해한다.

타인을 인식함에 있어 먼저 시선을 두게 되는 신체부위이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작용을 담당하는 두부가 잘려나간 존재들은 서로를 식별하기 어려워진다. 물의 범람은 자기인식 및 타자의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여 정체성의 외해를 가져오는 혼돈의 배경이며, 제국주의 일본이 패전에 의해 막을 내린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제국주의적 폭력의 변형된 형태들이 난무하는 불연속성의 경연장을 그려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4. 나오며 - 수중공간과 전후 일본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논의 되지 못했던 일본의 전후라는 구체적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본 아베 코보의 수중세계를 분석하여, 그 안에 묘사된 구체적인 물질상전이의 문제가, 패전 후 혼돈 속의 일본사회에서 목격하게 되는 사회적 경계의 소멸과 재구성을 둘러싼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온도 등의 환경변화에 의한 물의 구조상전환이 「홍수」에서는 다이내믹한 물의 운동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에 반해, 「수중도시」에



서의 물은 그 변화의 스테이지가 세장의 그림을 통해 단계적이며 간접적으로 나타나있다.

아베의 소설 텍스트에서 인간이 초래한 환경의 변화가 인간 자신의 신체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전개는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단지 기이한 상상력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패전, 원폭투하, 패전 후 연합군에 의한 GHQ통치기, 오염으로 인한 미나마타병 등 일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한 현실 위에 선 상상력에 기인하며, 그 공간대는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확산 가능한 힘을 지닌다.

패전 후 일본의 혼란스러운 전환기처럼 물 속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폭력이 분출한다. 하지만 스스로의 신체의 경계를 허물어 그 폭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속에 휘말리기도 하는 인간들의 홍수 속에서 빛나는 '결정結晶'으로 그려지는 것은 노동자의 심장이다. 인간 스스로의 물질적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분출하지만 그 폭력 속에서 희망으로의 희미한 연결고리가 물질결정을 맺으며 반짝인다.

「홍수」의 노동자 계급의 액화, 「벽 - S · 카르마 씨의 범죄」에서 카르마 씨의 눈물로 야기되는 홍수, 도시 노동자들이 '불연속적인 현실 속에 매몰되어가는 「수중도시」 등의 텍스트에서 우리는 전전의 논리의 단절 이후 새로운 질서가 성립되는 격동의 도정 위의 전후 일본이 낳은 경계선상의 존재들을 발견하게 된다. 물의 상전이를 통해 그려지는 다양한 수중 공간은 체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지점에서의 유동하는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은 약하지만 스스로의 경계를 해체하여 새로운 자신을 재구성해내고 물질의 상전이 과정을 통해 강한 운동성을 드러낸다. 그 운동이 폭력을 낳기도 하며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폭력 속에 휘말려 이를 증폭시키기도 하는 모습에서, 일본의 전후라는 전환기의 불안정성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체제의 전환기에 아직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회색시대에서의 격렬한 변형은, 이 개체 변형의 문제가 개별 주체를 넘어 범제도적 주체의 변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安部公房. 『安部公房全集』. 東京: 新潮社, 1997-2009.
- 花田清輝. 「変形譚」. 『花田清輝全集』2卷. 東京: 講談社, 1977. 400-409.
- 石崎等編. 『安部公房『砂の女』作品論集』. 東京: クレス出版, 2003.
- 小森陽一・井上ひさし編著「三島由紀夫と安部公房 - 〈仮面〉と〈砂漠〉の預言」『座談会昭和文学史』. 東京: 集英社, 2003. 211-318.
- 波瀾剛. 『越境のアヴァンギャルド』. 東京: NTT出版, 2005.
- 呉美姫. 『安部公房の〈戦後〉』. 東京: クレイン, 2009.
- 岡庭昇. 『花田清輝と安部公房 アヴァンギャルド文学の再生のために』. 東京: 第三文明社, 1980.
- 谷真介編著. 『安部公房評伝年譜』. 東京: 新泉社, 2002.
- 鳥羽耕史. 「安部公房『第四間氷期』 - 水のなかの革命 -」. 『国文学研究』 123 (1997): 106-116.
- \_\_\_\_\_. 『運動体・安部公房』. 東京: 一葉社, 2007.

Phase transition of water  
and the fluid situations in postwar Japan

Lee, Sunyo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article argues about the phase transition of water and the destruction of boundaries in Kobo Abe's texts written in the 1950s from the geopolitical point of view about the postwar period, especially about General Headquarters (GHQ), during the Allied occupation period in Japan. Abe has written about metamorphosis in many of his texts. Metamorphosis has been presented as the process transforming human bodies to things, or presented as the situation itself after the process is completed through the dissolving of boundaries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new body. The characters in Abe's texts are weak and have low-social status, but they have the potential to transform themselves, which shows their dynamism. Heightening the phase transition of things and the violence of the underwater-world, Abe forces us to read the connotations of an unestablished cognition of boundaries shown in postwar society in Japan.

주제어 (Keywords): 변형 (metamorphosis), 불연속 (discontinuity),

경계의 와해 (dissolving of boundaries), 아베 코보 (Kobo Abe),  
『수중도시』 (*Underwater City*)

논문제출일: 2012. 08. 05
심사완료일: 2012. 09. 10
게재확정일: 2012. 09. 15

www.kci.go.kr